

몬티 위원장, EU 확대에 따른 경쟁정책의 변화 적극 권장

본 연합회

지난 4월 29일 유럽연합이 역사적인 EU 확대 및 그에 따른 경쟁규범의 확대와 개정을 준비 하던 유럽 경쟁의 날 행사에서, 마리오 몬티 EU 경쟁정책담당 집행위원이 참석자들에게 연설을 했다.

몬티 위원은 경쟁정책의 변화가 “글로벌 경제에 완전히 통합된 유럽연합 25개국의 경쟁규범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새로운 규제에서는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 한해 경쟁당국이 개입하고, 소비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좀 더 근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개혁적이고 현대적이며 효과적인 경쟁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이득이 극대화 되도록 시장 기능을 움직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경쟁규범 위반에 맞선 싸움에 동참할 수 있는 전대미문의 기회까지 제공할 것”이라고 몬티 위원은 선언했다.

새로운 체제

몬티 위원은 현안인 기업결합 통제 및 반독점 집행 부문의 변화를 설명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소송에 대한 EU의 결정을 요약했다.

몬티 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기업결합 통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는 기업 합병을 평가하기 위한 법적 테스트(legal test)를 명확화 하는 것이다. 단일 기업에 의한 지배나 담합(협조적인 행위) 또는 일방적인 영향력을 지닌 소수 기업들의 지배 즉, 과점에 의한 지배 등 모든 반경쟁적 형태에 대한 규제를 다루고 있다. 위원회는 모든 형태의 반경쟁적 기업결합으로부터 소비자를 지키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기업결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은 규제 완화 사유로 고려할 예정이다. 단, 이러한 효율이 보다 저렴한 가격이나 신제품의 형태로 소비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반독점 집행의 최전선에서, 몬티 위원장은 “지난 40년 간 더욱 심층적인 개혁을 통해 규제 시스템을 철폐해 오는 동안, 기업들은 틀에 박힌 계약 및 사업 관행을 고수해왔다. 나는 단지 기

업결합에 국한해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경쟁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받아 들여졌던 공동 연구 또는 공동 생산 협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이고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활동을 규제하는 데 자원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미 카르텔과 우월적지위 남용에 맞선 싸움에 대비하여 1999년부터 40억 유로에 달하는 자금을 축적한 상태다.

몬티 위원은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EU의 결정을 예로 들어 우월적지위 남용을 설명하면서, 위원회의 활동으로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송에서는 매우 복잡한 문제들이 다루어졌지만, “경쟁규범은 전통산업 만큼이나 첨단 기술산업에도 깊숙이 적용된다”고 몬티 위원은 한마디로 말했다.

위원회는 대표적인 윈도우 운영체제가 경쟁업체의 제품과 호환되는데 필수적인 정보의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보안이나 신뢰성, 속도 등의 분야에서 혁신과 경쟁을 저해”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행위가 소비자의 이익에 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즉,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러한 행위 때문에 “소비자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가격이 높아졌으며 혁신이 둔화되었고, 궁극적으로는 성장마저 둔화됐다”고 몬티 위원은 주장했다.

소비자 역할 증대

몬티 위원은 새로운 반독점 체제에서는 소비자들의 역할이 늘어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강력한 경쟁집행에 따른 혜택을 이해해야 하며, 경쟁법과 효과적인 법 집행이야말로 진정한 소비자들의 편”이라고 말했다.

몬티 위원은 “분권화 된 반독점 규범 집행을 통해 소비자들은 불만을 각국 경쟁당국에 전달할 수 있고, 당국은 EU 경쟁규범을 적용하는 데 전적으로 개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EU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유럽 소비자들과의 대화를 확보하기 위해 이 과정에서 소비자 연락담당관이 임명된다. 소비자 연락담당관은 소비자 조직의 1차 접촉자 역할을 하며, 건의 내용이 유용할 경우 경쟁 소송에 대비하라고 소비자단체에 통보한다.

몬티 위원은 또한 반독점 규범에 따라 신고 시스템이 폐지되면 위원회는 외부 출처로부터 경쟁법 위반 사례를 색출하는 데 더욱 주력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EU의 관용 (leniency) 프로그램을 가리켜 “경쟁규범을 위반한 기업들이 위원회에 협조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이지만, 경쟁당국에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소비자와 소비자협회가 있다는 사실도 중요한데, 이것을 감안할 때 반경쟁 관행의 최종 판단자는 바로 소비자들”이라고 설명했다.

사적 집행>

몬티 위원은 “공공기관을 통한 EU의 경쟁규범 집행을 보완해주는 소비자 측면에서의 또 다른 중요한 것은, 개별 당사자들이 국가 법원에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를 인정해 달라거나 불법 행위 중단을 명령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밝혔다.

유럽법원 판결에 따르면, 경쟁법 위반에 따른 개인의 피해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제81조는 완전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몬티 위원은 EU 경쟁규범의 사적 집행이 현재 공적 집행보다 뒤쳐져 있으며, 따라서 EU 경쟁규범의 준범 동기와 효율성에 역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시인했다.

새로운 규제에 따르면, 법원은 경쟁 문제를 전적으로 판결할 수 있다. 따라서 위원회에 합의 사실을 통보했다고 해서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몬티 위원은, “위원회의 목표는 EU 경쟁법의 사적 집행을 독려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며, 사적 집행은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지닐 것이며, 경쟁 규범의 준수율을 높여 줄 것”이라는 말로 끝을 맺었다.

마리오 몬티 위원 4.29. 경쟁의 날 연설문

신사 숙녀 여러분,

EU의 역사적인 확대 및 EU 경쟁법의 소규모 개혁이 아직 48시간도 남지 않은 이 때에 이곳 아일랜드에서 유럽 경쟁의 날 행사를 거행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이야말로 명실상부한 “경쟁의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나는 이번 컨퍼런스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헌신한 아일랜드 경쟁당국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사는 경쟁의 유익을 일반 대중들에게 알리자는 취지로 경쟁의 날 행사를 실시한 이래 9번째가 됩니다.

또한 나는 유럽 의회의 지원에 감사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경제·금융통화 위원들과 Mrs Christina Ranzio-Plath 위원장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주 위원회는 “경쟁력 있는 유럽을 위한 개혁적 경쟁정책(A pro-active Competition Policy for a Competitive Europe)”이라는 문서를 채택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경쟁정책이 생산성 증대와 혁신을 불러오는 이유와 방법 그리고 이로 인해 유럽의 경쟁력이

세계적 차원에서 증대된다는 점과 유럽 단일 시장의 경제적 성장에 장기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산업에 있어서 경쟁성과에 이처럼 초점을 맞추는 것은 소비자후생이라는 긍정적 효과에서 벗어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생산력 향상과 국제 경쟁력의 궁극적 목적은,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번영과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쟁의 바람이 충분히 불 때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생산자들은 카르텔이나 독점사업자 또는 과점사업자에 의해 시장이 지배되던 때보다 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최근의 혁신적인 경쟁정책이라면 blueprint for future action이라는 문서로 배포한 바와 같이 2003년 위원회에서 변호사, 공증인, 회계사, 건축사, 엔지니어 및 약사 등과 같은 자유업자에 대한 경쟁성 분석을 들 수 있습니다. EU에서는 자유업자들에 대해 수수료 범위, 광고 규제, 배타적 권리 및 회원간의 협력 금지 규정 등 강한 정도의 규정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통상의 경제활동 영역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효율과 혁신의 부재 및 가격 고정을 부추기는 매우 제한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회원국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며, 연구 결과는 공개되어 공청회 및 다른 회원국의 관련당국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연구에서는 각 분야에서의 행위에 대해 전문업법상 현행의 높은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른 한편, 공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근거에 의한 다른 규제장벽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지난 2월에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경쟁에 가장 해가 될 수 있는 규제들을 분류했습니다. 위원회는 전체적인 변화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쟁제한행위를 하는 자들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경쟁적 행위를 제거할 법규정을 재검토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경쟁당국과 전문업단체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이들에게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권리가 제고될 수 있도록 친경쟁적 메커니즘을 발전시켜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한 메커니즘에는 예를 들면, 협정 수수료율에 대한 폐지 사실의 공개, 독립적인 기관이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하여 관련 자료를 발간하거나 또는 소비자단체에 의한 감시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제 연설의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경쟁정책은 최근에 중요한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25개 회원국으로 확대된 EU에 있어서 경쟁규범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드는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EU의 확대와 관련하여 5월 1일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규제체계는 보다 효율적이고 우수한 것입니다. 경쟁당국은 오로지 소비자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만 간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쟁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한, 소비자를 가장 중요시 할 것입니다. 다음의 사례가 이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보여 줍니다.

기업결합 규제에 있어서, 법적 테스트에서는 기업결합의 유형을 조사하여, 독점시장이 되는지, 소수의 사업자들이 협력관계를 통해 시장을 지배하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동시에 위원회는 모든 형태의 반경쟁적 행위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합니다. 또한 기업결합을 고려함에 있어서 기업결합을 통해 가격이 저렴해지거나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는지와 같은 효율성증대 효과도 반드시 고려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소비자는 우리의 관심사 중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독점금지법의 집행, 즉 카르텔 금지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에서는 지난 40년간 유지되어 왔던 사업자가 모든 협정과 사업활동을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좀 더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비단 기업결합에서뿐만 아니라 경쟁상의 문제가 덜 되어왔던 공동 연구나 공동 생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위원회에 경쟁당국이 해야 할 일, 즉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해를 주는 카르텔을 방지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도록 할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을 살펴볼 때, 이미 이러한 카르텔에 대한 금지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는 몇몇 필수 비타민의 가격을 고정한 사업 자들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 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999년 이래 거의 40억 유로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혁은 또한 주로 우리의 조치가 실제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금지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회원국 경쟁당국들의 지원에 힘입어 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마이크로소프트 케이스가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당해 시장은 인터넷을 매일 이용하고 미디어 플레이어를 다룰 줄 아는 젊은이들에게는 친숙하겠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에게는 복잡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문가이든 아니든 또는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업 상 이용하든지에 관계없이 모든 소비자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경쟁규범은 전통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하이테크 산업에서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행위를 소비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보았습니까? 경쟁사의 상품과 "대화"할 수 없도록 윈도우 운영체제의 정보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보안성, 신뢰성 및 속도와 같은 혁신과 경쟁의 장점을 무시했습니다. 경쟁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반경쟁

적 행위를 하여 경쟁자들이 시장에서 제거된다면, 시장은 점점 더 반경쟁적이 될 것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음악이나 비디오를 다운받거나 재생시킬 때 이용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디어 플레이어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는, 이를 윈도우 운영체제에 끼워팔기 함으로써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경쟁과 혁신의 가능성을 심각하게 감소시켰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언제 어디서나 윈도우 운영체제에 미디어 플레이어를 끼워 줌으로써 콘텐츠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는 점점 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기술에 종속적이 될 수밖에 없고, 이를 통해 다른 대안적인 미디어 플레이어가 시장에 진입할 기회가 봉쇄당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는 최고의 제품과 기술이 살아남는다는 경쟁원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사무실과 가정용 PC 시장에서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는 운영체제와 결합하여 이룬 승리입니다. 이를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으나, 그 결과 소비자들의 선택과 혁신의 기회는 줄어들게 되므로, 경쟁당국은 이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결합을 깨는 조치는 혁신을 위해 긍정적인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윈도우와 끼워팔기를 하는 경우, 이는 더 이상 대안적인 제품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의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게 미디어 플레이어가 포함되지 않은 버전의 윈도우를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키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끼워팔기를 금지한 조치가 소비자들은 PC나 운영체제 구입시 미디어 플레이어를 더불어 살 수 없거나 웹상으로만 미디어 플레이어를 구입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PC 제조사들은 자신들의 PC에 소프트웨어들을 미리 장착하는데, 이 경우 PC 제조사들은 마치 "구매 대리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이는 소비자들에게는 편익으로 작용합니다. 우리의 조치는 가장 좋은 미디어 플레이어를 고를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미디어 플레이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제품의 장점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경쟁과정으로 인해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으며, 이러한 과정에서는 소비자들이 시장지배적사업자들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경쟁은 소비자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새로운 독점금지 집행 체제에서 소비자들의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이며, 저 또한 이러한 모습을 볼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먼저 강력한 경쟁법 집행이 주는 편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야 소비자들은 프랑스 출판 그룹인 Lagardere가 프랑스에서 가장 큰 출판사인 Vivendi Publishing을 인수하려고 했을 때와 같이 그들의 목소리를 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

당시 소비자들은 도서와 책값 선택의 기회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반대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Lagardere가 건설적 입장에서 제안한 조건하에서 기업결합을 승인한 적이 있습니다.

경쟁당국은 여기서 소비자들의 의견을 고려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강력한 경쟁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서로 연대하게 만듭니다. 전 세계 경쟁당국은 지원과 건전한 경쟁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들의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공감대가 유럽내에서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5월 1일 현재 유럽 경쟁 네트워크 안에서 소비자후생 증진과 유럽 경제의 효율성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위원회와 회원 경쟁당국간의 협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쟁법과 그 효과적인 집행은 소비자에게는 최고의 친구인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를 도와주신 European Bureau of Consumer Organisations(BEUC)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BEUC의 Jim Murry 국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새로운 규제 체계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접근을 더욱 쉽게 해 줄 것입니다. 특히 독점금지 규범의 분권화된 집행은 소비자들의 불만을 각 회원국의 경쟁당국에서 해결하도록 해 줄 것이며, 이 경우 각 경쟁당국은 EU 경쟁법을 적용하여 해결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EU위원회에 불만을 호소할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 12월에 오늘 이 자리에도 참석해 있는 Juan y Marti를 소비자연락관으로 임명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연락관의 역할은 유럽의 소비자들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의 임무에는 소비자 기관과의 1차적 접촉자로서의 역할과 건의 내용이 유용할 경우 소비자 그룹들에게 경쟁사건에 대비하라고 알려주기도 합니다.

독점금지 규범상 신고제도의 폐지는 위원회가 경쟁법 위반 사건에서 외부 출처로부터 소스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른바 관용 프로그램은 경쟁법 위반 기업들로 하여금 위원회의 조사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에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은 카르텔을 허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카르텔 참가자가 책임 면제를 받기 위해 경쟁당국에 신고할 가능성을 증대시켜서 카르텔 자체의 견고성을 흔들리게 하고 카르텔 형성 단계에서도 이를 방해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쟁당국에 시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소비자와 소비자단체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들이 시장에서 반경쟁적 행위를 당하는 말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소비자로부터 받은 한 장의 편지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소비자단체가 제출한 불만 사항은 통상 위원회가 조사절차를 개시하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 소비자단체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새로운 규제 체계에서 위원회는 보다 나은 공식적 불만 접수 절차(complaints procedure)를 구비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진술을 보다 구체화하고 우리는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불만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이를 이해 우리는 체크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제공받는 모든 정보의 유형이 분석됩니다.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할 이러한 의무는 추가적인 산물을 발생시키는데, 위원회는 접수받은 불만에 대한 공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규정된 4개월의 기간 이내에 그 사건에 대한 정식 조사를 할 것인지 여부를 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개인이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시장 정보를 여러 출처로부터 모아서 완전한 그림을 완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웹사이트를 하나 개설해 놓고, 범위만 혐의가 있는 정보를 소비자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EU 경쟁당국에 의한 경쟁법 집행에 대한 보완이라는 또 다른 측면에서 소비자들의 중요성을 생각해본다면, 사인(私人)이 각 회원국의 법원에 위법한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법원에서 판시했듯이, 경쟁법 위반 사건에 있어서 사인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경쟁법 제81조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할 수 없습니다. EU 경쟁법상의 사적 집행은 현재 공적 집행에 비교해 볼 때 뒤쳐져 있습니다. 이는 EU경쟁규범의 준법 동기와 효율성에 역효과를 미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제 체계에 따르면, 회원국 법원은 경쟁 문제를 전적으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당해 사건이 EU위원회에 접수되었다고 해서 법원에서의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일이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위원회는 EU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심사숙고중에 있습니다. 이 연구에 대한 중간 결과에서는 사적 집행이 매우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 손해배상을 받는 사례가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 연구에 대한 최종 결과와 조사에 근거하여, 위원회는 2004년 하반기에 녹색(Green Paper)의 초안 작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의 목적은 EU경쟁법상 사적 집행을 독려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사적 집행은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지닐 것이며, 경쟁규범의 준수율을 높여줄 것입니다.

이제 끝을 맺고자 합니다. 5월 1일이 코앞에 있고 우리는 EU경쟁정책에 있어서 격동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개혁적이고, 현대적이며, 효과적인 경쟁정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기능이 소비자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경쟁법 위반 행위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도 제공할 것입니다.